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

12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6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7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불 같은 시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지금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1.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이유는 무엇인가요?(13-14절)

2.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나요?(19절)

• 닦아가기

고난이 두려워서, 혹은 고난이 억울해서 멈추고 있던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장로들을 위한 조언

1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도 역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3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4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청년들을 위한 조언

5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3 묵상하기

교회의 직책은 세상의 직책과 다릅니다. 세상의 직책은 자기 권력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교회의 직책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여러 세대가 하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기꺼이 섬기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양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와 함께 세상으로 눈 돌리게 하는 여러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에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어떤 핍박도 곳곳하게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아직 복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양 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모임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더 깊이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가르칠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꺼이 순수한 열정을 다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먼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소그룹 리더 등 교회에 세워진 양육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요?
- ②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항상 겸손히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배운 것을 말로 삶으로 가르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마귀를 대적하라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9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마지막 인사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4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3 묵상하기

성도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핍박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해서 타협하게 하며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의 정체를 안다면 대적해야 합니다(9절).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8절). 감사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10절). 고난과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 마귀는 결코 성도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하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내가 어떤 공격에 잘 넘어지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대중매체, 세상의 가치관을 서서히 주입시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여러 관계나 핍박 등으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영적 공격의 정체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매일매일 마귀와의 치열한 게릴라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의 공격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 ②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 특히 자주 공략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늘도 마주할 영적 싸움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20.12.23

인생 성탄절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26 그 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27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28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iera.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29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30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31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 믿음으로 받는 마리아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37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38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3 묵상하기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당시 풍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고백(38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35절)를 믿었고, 이미 친척인 엘리사벳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36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37절)는 가브리엘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3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통해 시작되었듯이, 주님은 평범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4 적용하기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언제나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라고 계속 핑계를 대며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탄을 앞둔 요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이 나의 '인생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만약 내가 천사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이 말씀을 듣게 된 마리아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 ②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게 찾아오신 주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엘리사벳의 고백

- 39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40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배 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42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배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43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배 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 마리아의 찬양

-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48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 49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51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흠여 버리셨습니다. 52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53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54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묵상하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앞두고 마리아는 친척이자 믿음의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많은 나이에 기적같이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과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임신한 마리아는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던 중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무척이나 고되겠지만, 이 영적 교제와 믿음의 고백은 그 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4 적용하기

성탄 이브입니다. 모두가 축제의 날로 즐기는 요즘, 친한 사람들과 즐겁고 흥미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나눔이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관계 속에 풍성하게 펼쳐지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듯 내가 일상 속에서 기쁘거나 슬픈 일, 은혜와 간증들을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 ② 성탄 이브인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뜻깊은 성탄을 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수의 탄생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3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4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5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6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7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고 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천사들의 찬양

8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10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11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12 너희가 천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13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3 묵상하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각자 고향으로 가게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미 5:2).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 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11절). 하나님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땅에, 그중에서도 더 낮은 구유에 누인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낮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에게 선 포되었고,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4 적용하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날로 바뀌 버렸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화려함으로 변질시킨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성탄이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성탄절인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 친구관계, 신박한 일정, 새로운 이벤트들에서 기쁨의 소식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 ②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듯이,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인사말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2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8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